

시론

‘감원’은 해법 아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협상타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촉진방안에 따라 정리해고제를 조기시행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및 업종전환'을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근본적인 경영상의 이유'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해는 IMF가 우리나라에 국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과감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정리, 국제수지적각도의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혁신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전반에 걸친 체질개선을 요구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IMF의 산업구조조정요구가 있기전에도 경영계에서는 이미 급속한 기술혁신과 격화되는 시장경쟁체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직되고 융통성을 유연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전제하에 99년 3월까지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정리해고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경직된 고용구조는 노동시장의 원활한 수급을 저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새로운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정리해고제가 시행되지 못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는 근로자에 유일한 생활터전인 직장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고용관계의 지속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법내재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특히 근로자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요구된다.

97년 3월 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과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파관수를 대표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는 "법 제31조는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99년 3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성 정리해고의 내가지 요건은 그동안 정리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하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어온 요건들을 그대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시행을 유예하고 있는 제척을 폐지하여 당장 이를 시행한다고 해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것이 없으며,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제척은 기업측에 대한 심리적 국면전환용으로써 정리해고제의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조정의 예외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제 조항의 유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조정에 따른 노사간의 마찰'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들의 생계유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될 정리해고

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리한 대량해고로 인해 노사간에 큰 마찰이 빚어진다면 오히려 불협조적이나 경쟁력 회복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계는 해고회피 노력의 의무 성실한 이행 등에 의하여 근로자측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무조건 감원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를 지시하여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정부는 고용조정에 앞서 지금까지 근로자의 숙련형성과 다기능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하며 취업알선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실업자의 재취업 앞선대책 등 고용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경쟁력 회복 걸림돌 될 수도

그러나 정리해고제가 시행되지 못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는 근로자에 유일한 생활터전인 직장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고용관계의 지속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법내재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특히 근로자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요구된다.

97년 3월 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과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파관수를 대표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는 "법 제31조는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99년 3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성 정리해고의 내가지 요건은 그동안 정리해고의 정당성과 관련된 하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어온 요건들을 그대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시행을 유예하고 있는 제척을 폐지하여 당장 이를 시행한다고 해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것이 없으며,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제척은 기업측에 대한 심리적 국면전환용으로써 정리해고제의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조정의 예외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제 조항의 유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조정에 따른 노사간의 마찰'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들의 생계유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될 정리해고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열린마당

경제살리기



◇서울 구릉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신도들을 대상으로 '외화모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일 현재 3천9백달러와 7백33원을 모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우리는 이렇게 동참

매일 위기극복 기원  
의식주부터 절약 지혜  
송년법회 검토하게  
포장지·이면지 등 재활용

◇포장지 재활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굳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고 본다. 청소년은 물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수퍼나 백화점 등에서 산 물건을 넣은 온 비닐봉지나 쇼퍼백을 깨끗이 씻거나 바르거나 다시 가게에 돌려주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현성·청교련 회장>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 전달: 공적중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월부터 추진해 온 장학회를 개관 3주년인 23일 정식발족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제난국 때문인지 각종 강좌프로그램에 신청자가 줄고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심산·부산 금정사 회복지관장>

◇서류봉투 재활용하기: 불교환경교육원에서는 3년전부터 우편발송용 대봉투를 최소 4회 이상 쓸 수 있도록 제작해 사용하

고 있다. 봉투 겹면에 송·수신자 기재란을 4곳씩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절약도 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뜻에서였다. <법륜·불교환경교육원 이사장>

◇검소한 식탁문화: 우리 접에서는 식단의 반찬가지수를 줄이기로 했다. 즉 김치, 감, 야채샐러드, 된장찌개, 미역국 등 5~6가지에서 4가지로 줄여 근검절약하기로 했다. 이를 굳이 표현한다면 '검소한 식탁문화 가꾸기'라고 말할 수 있다. 나라경제를 일으키는데 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대해·선산 원각사주지>

◇위기극복 기도방법: 조석예불시 국가위기극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수행자라면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한다. 이는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다. 이 기회를 받아 모든 종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를 올리라고 제안해 본다. 간

절한 기도는 경제난국을 풀어나가는 지혜를 줄 것이다. <경우·충주 신홍사주지>

◇송년법회 취소 및 신년하례 축소: 계획했던 송년법회를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개 지회 27개 단위산악회(회원1만5천여명) 회장의 대다수 의견이 "어려운 시기에 큰 법회를 여는 것은 국민적인 경제살리기 운동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취소를 한결같이 요청했다. <순환수·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회장>

◇생활품 아껴쓰기: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이를 용도에 맞게 철저히 분류해 재활용하고 있다. 복사용지는 이면지를 사용하고 쓰다 남은 종이도 작게 오려 메모지로 이용하고 있다. 또 불펜도 다 쓴 후 버리지 않고 불펜심을 교체해 재사용하고 전화도 사무적인 것 이외의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지실·우리는선우 공동대표>

◇음식줄이기: 가구나 가전제품 옷 등 불필요한 사치품은 안 사고 안 입고, 외국여행도 가지 않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 같은 주부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활품·음식량 줄이기 등을 실천해 나가자.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영양 과다인 경우가 많다. <엄영란·불자멀러트>

◇외국전시 자제: 외화절약

총체적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각계 불자들의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 사찰에서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 입제를 했는가 하면 신행단체들은 과소비추방운동, 외화모으기 등을 비롯 송년법회를 전면 취소 또는 축소했다. 교계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종단·단체 경제위기 극복 「불자실천지침」

- 조계종 1)외화 환전 2)해외성지순례 및 여행 자제 3)외제사치품 구입 자제 4)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 1일회 봉행 5)불전에 외국산 농산물과 다과류 안 올리기 6)대중교통 이용 7)남을 위해 봉사 8)불행한 일 다했을 때 참회

- 태고종 1)해외여행 및 연수 자제 2)수입농산물 불전에 안 올리기 3)반우공양 정신을 살려 음식쓰레기 줄이기 4)대중교통 이용 5)불필요한 전기·전등 끄기

- 천태종 1)해외여행 자제 2)신축불사 자제 3)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비 절감 4)자동차 10부제운행 동참 및 에너지 절약 5)저장량 및 과소비 추방운동 펼치기 6)에국심 고양

- 통교대 1)매주 금요일 차없는날 실시 2)해외연수 자제 3)98학년도 예산 긴축재정(10%절감) 4)절전, 절수, 재활용생활화 등 절약 5)고환장터 개설, 아껴쓰기 생활화 6)외화저축 및 동전모금 7)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8)해외여행 자제 및 외화절약

차원에서 내가 회장으로 있는 민족미술협회와 산하 미술가들은 외국에서 하는 전시를 가급적 자제하고 외국에서 쓰고 남은 달러는 한데 모으기로 했다. 연말에 예정했던 미국방문도 취소했다. 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 정기전도 절약차원에서 매년에서 격년제로 바꾸었다. <강영일·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 회장>

◇의식품 과소비줄이기: 의식비용이 일본의 2배나 된다고 하니 조금 지나친 감이 든다. 또 의류와 양주에 대한 수입품 선호가 높다고 한다. 말로만 근검절약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미란·서울 서대문구 망월동>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가정에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를 뽑는 것부터 실천하기로 했다. 꽃아문 전기코드에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전기가 수돗물처럼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절대로 전기코드를 꽂아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용옥·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가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고집하는 것은 현대인의 도

천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얼굴미용 99.9.15 성영, 김 3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禪筆(眞品) 佛子體의 神祕를 최초로 공개 김강경, 법구, 다리니, 각종 불서, 범종

홍화씨를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5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아간 및 통신생) ①기본과정: 사물(목탁, 태경, 요령, 법고)다루는법,도량식, 첫송,상단예불,가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등